

빛바랜 사진 속의 근대과학

글 | 김근배 _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rootkgb@chonbuk.ac.kr

한가람[큰강] 흘러흘러 비진 터 기름지니
삼천리 맑은 정기 영킨 곳이 예로다
태백[금성]에 밤이 새여 봉(鵬)은 바람을 치네
아! 자유에 사는 경성대학 예과

위는 해방직후 널리 불린 경성대학 예과의 교가 1절이다. 당시 경성대학 예과에 재학 중이던 천관우가 선구적인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나운규의 곡에 가사를 붙여 만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재들이 큰 뜻을 품고 자유로이 나라를 펼 학문의 전당 경성대학을 그리는 내용이다. 예과 학생 천관우가 경성대학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껏 멋스럽게 묘사해 놓았다.

경성대학의 힘찬 날갯짓

예과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립적인 고등학교 대신 경성제국대학에 설치한 제도로 해방 후에도 몇 년 동안 유지되었다.

경성대학은 1945년에 새롭게 출발한 대학이다.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세워 자국 학생을 주로 입학시켜 운영해 왔다. 조선인 학생들은 언제나 전체 정원의 1/4 이하만 뽑았고, 교수진은 일본인들이 독차지했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이끌 조선인



경성대학 이공학부 제1회 졸업사진

중심의 대학을 염원해 왔다. 그러던 중 해방이 됨으로써 일제의 경성제국대학을 비로소 한국의 독립된 대학으로 탈바꿈시킬 기회를 얻었다.

감격에 겨운 학생들은 우선 당장 대학 이름부터 바꾸고자 했다. 그들은 대학 현판에서 일제의 색채를 풍기는 '제국' 두 글자를 흰 종이로 가렸다. 일제의 대학에서 한국의 경성대학으로 명칭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통치를 맡은 미군정은 1945년 10월에 미국 육군대위 해리 앤스테드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교수진과 편입생들을 새로이 선발했다. 이 때 학교 명칭도 법령에 의해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얻었으나 실제로는 경성대학 그대로 불렸다. 그 이유는 서울보다 경성이라는 지명이 일반적으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주요 보직자를 제외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대학이 힘찬 출발을 하게됐다.



이듬해인 1946년 7월에는 해방직후 3학년으로 올라갔거나 편입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침으로써 제1회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법문학부 65명, 이공학부 38명, 의학부 34명을 포함한 총 137명이 영예의 경성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한국이 역사상 처음 배출한 최고학부의 인재인 셈이다. 교가에서 노래한 길이가 몇 천리나 되고 한번에 9만 리를 날아오른다는 상상의 대붕처럼 이들의 앞길도 거침 없어 보였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웅대한 꿈을 펼칠 보배스런 존재였다.

사진 속의 과학 주역들

영광의 제1회 졸업생 가운데에는 응용화학을 전공한 이재성도 끼어 있었다. 그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본 후배 마경석(서울대 응용화학과 2회 졸업)이 확대 복사해서 고이

간직해 왔다. 이것이 '경성대학 이공학부 제1회 졸업기념 사진'으로 마경석이 지난해 서울대 공대에 기증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사진 원본은 현재 유실되어 없다고 하니 이것이 유일하다.

마경석은 "일제시대에 이태규와 이승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과학기술로 나아갈 의욕이 생겼다"며 그들은 "근대화의 초석이 된 분들"이라는 자신이 가진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사진을 소중히 지녀오다가 소속 기관의 품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제대로 간수해 오지 않았다면 이 사진은 역사의 뒤편으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사진은 아주 놀랍게도 한국 근대과학의 주역이라 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공학부 교수 24명과 졸업생 38명이 대학 본부와 군정 관계자들(가운데 7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이 입고 있는 양복과 교복

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다소 낯설게 보이는 풍경이다. 한국 교수들 가운데는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이승기 박사(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와 아주 정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태규 박사(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눈에 띈다. 이승기의 왼쪽 세 번째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한국인은 미군정 때 군정장관 존 하지의 통역을 맡고 있던 미국유학 출신의 이묘목이다. 뒤편의 건물은 옛 법문학부 건물로서 당시 이공학부가 임시로 사용하던 중이었다. 영어로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 쓴 입구 표지판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해방 당시 남한에서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은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적어도 50명이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사진에는 절반 포함), 게다가 1회 졸업생 38명이 그에 더해졌으니 과학기술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게 컸다. 무려 90명에 이르는 중견 및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1946년 7월에 한국 과학자사회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성대학 과학기술진흥의 역량과 위력은 더 실감난다. 한국의 과학과 공학을 대표하던 이태규(교토제대 화학박사)와 이승기(교토제대 공업화학박사)를 필두로 박철재(교토제대 물리학박사), 도상록(도쿄제대 물리학), 김동일(도쿄제대 응용화학), 김지정(도쿄제대 수학), 여경구(와세다대 응용화학) 등의 얼굴이 보이고 있다. 사진에는 없지만 조광하(오사카제대 화학박사), 김봉집(와세다대 전기공학), 김종원(도쿄제대 지질학), 최호영(규슈제대 야금학), 최경렬(교토제대 토목공학) 등도 이공학부 교수로 참여하고 있었다. 모두가 과학기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인사들이었다.

이처럼 1946년 경성대학 교수와 졸업생들은 한국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기대주로서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한국의 과학기술에 앞날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만큼 이들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가장 강력한 주류 집단으로서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떠맡았다. 과학기술 후속세대를 새로이 양성하고 전문분야별로 과학학술단체를 만들며 주요 산업시설을 재건하는 등의 일들이 모두 이들의 어깨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과학 하는 사람들을 과학자 또는 '과학가(科學家)'로 불렀다. 1946~47년에 발간한 '현대과학'에는 과학 하는 사람들을 소속 기관별로 연재물로 소개를 했는데 그 때 '과학가'라는 말로

표현했다. 과학가는 과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기사(技師)'라는 호칭을 붙였다. 이러한 명칭은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혼란에 뒤이은 '과학 분단'

해방공간은 수많은 주장들이 들끓고 분출하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와 같았다. 과학기술계도 이 기회에 외연을 넓히고 교육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힘썼다. 국가의 과학기술을 주관할 과학기술부 창설을 내세우고 대학의 연구실과 학회를 정비하려고 애썼던 것이 그 예다. 이 일들은 일제의 과학기술 억압을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로 여겨지며 정당성을 얻어갔다. 한마디로 '과학조선 건설'의 부푼 단꿈을 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이념 대립과 더불어 국토 분단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어닥쳤다. 과학기술계도 부지불식간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는 각종 단체들이 사회 곳곳에 번지며 난립했다. 급기야 과학기술계의 요구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 잘 실현될 수 있겠는가와 연결되었다. 바로 자신이 활동할 공간을 선택하는 '지역이동'의 문제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북한은 확실히 남한에 비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펴며 재빨리 선점해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46년 7월 경성대학 소속의 과학기술자들 가운데 교수 22명(약 5명 미확인), 졸업생 10명(2명 행방불명)을 포함한 총 32명이 월북을 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도 약 40%의 전문 인력이 북행을 선택했다. 그만큼 북한으로의 유인력이 상당히 컸다. 졸업생보다 교수들이 월북을 훨씬 많이 한 이유는 무엇보다 과학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북한이 더 갖추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공별로는 가장 선임의 위치에 있던 교수가 월북한 학과일수록 월북자의 비율이 높았다. 예컨대 물리학과, 응용화학, 전기공학과는 학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의 교수들이 북으로 올라갔다. 당시 이 학과들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은 도상록, 이승기, 김봉집이었다. 반면에 화학과, 토목공학과, 광산야금학과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대로 남아 혼란 속에서도 학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다. 이 학과들은 이태규, 최경렬, 최호영이 이끌고 있었다.

혼란의 와중에도 남에서 활동한 과학기술자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태규와 김동일이 서울대 문리대 이학부와 공대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공계 학과들을 일으켰다. 공학 중심으로 세워진 한양대도 경성대학 졸업생들이 교수진의 주축을 형성했다. 이밖에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단국대, 그리고 부산대, 전남대, 영남대 등의 교수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조광하는 성균관대 총장, 박기채(응용화학)는 부산대 총장, 오국주(전기공학)는 전남대 총장, 최상업(화학)은 서강대 부총장, 강명순(기계공학)은 한양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철재는 문교부로 진출하여 한국 원자력의 초석을 마련한 일등 공신 노릇을 했으며, 상공부와 과학기술처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산업계에서 역할이 컸던 사람들로써 윤동석(광산야금학)이 포항제철, 김영생(응용화학)이 충주비료공장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서울을 대표하는 다리의 하나였던 제2 한강교의 설계에는 김규태(토목공학)가 참여했다.

월북한 과학기술자들도 북한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이승기는 비날론을 공업화한 후 과학원 함흥분원을 이끌었고, 과학원에서 활동한 여경구는 염화비닐, 마형옥(응용화학)은 갈섬유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련유학을 다녀온 이세훈(응용화학)과 박성욱(광산야금학)은 빠르게 승진하여 젊은 나이에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과학원 부원장에 올랐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이학부장 도상록, 부학부장 전평수(물리학)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교수로 활동했다. 이들 중 정근(물리학)과 김용호(응용화학)는 우수한 연구논문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김책공업대학과 홍남공업대학에도 여러 명의 월북 과학기술자들이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다시 돌아보는 한국 현대과학사

현재의 서울대학교 자연대와 공대의 동창회 명부에는 경성대학 1회 졸업생들이 들어있지 않다. 이들을 가르친 교수진도 물론 빠져 있다. 서울대는 자신의 공식 역사를 1946년 8월부터 기록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도 일제의 패망과 함께 그 역사가 끝나므로 당연히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경성대학 교수와 1회 졸업생들은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신세'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만이 경성대학 교수와 졸업생들을 일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경석이 동창회장으로 재

직할 때 이 일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월북자를 거론하는 것을 그 동안 매우 터부시해왔다. 과학기술계도 덜 하지 않았다. 월북자들은 한결같이 좌익, 불순분자로 여겨졌던 까닭이다. 경성대학 이공학부 졸업기념 사진이 세상에 일찍 공개되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 사진에는 많은 월북 과학기술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남북 분단과 과학기술자들의 월북은 우리에게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원로 과학기술자들을 만나보면 그 경험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잘 드러난다. 과학기술계 집단은 물론 개인들에게도 분단의 아픔은 너무나 깊이 서려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망각의 늪을 건너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어느덧 남북 분단도 회갑의 나이를 지나치고 있으니 이제는 과학 분단을 이야기해도 될 듯하다.

언젠가 남과 북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르면 한국의 현대 과학기술사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 남한의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북한의 과학기술도 자리를 나란히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경성대학 교수와 졸업생들도 한국 과학기술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 하리라. 마경석은 “분단도 역술한 데 그들을 왜 빼나”며 “통일이 되면 다같이 한국의 과학기술자로 여길텐데”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경성대학 과학기술자들을 회상하는 일은 남북을 통합한 과학기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진 속 옛 법문학부에 있던 마로니에는 60년의 풍파를 잘 견뎌낸 까닭에 지금은 거목으로 자라났다. 그 근처에 도열한 과학기술자들 가운데 북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고인이 되었고 남에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 동안 거목으로 자라난 마로니에처럼 이들을 역사 속에 풍성히 되살리는 일은 우리의 남겨진 몫이다. 그럼, 우리 근대과학의 주역이라 할 이들을 만나러 지나온 과거 속으로 과학여행을 떠나보자. ㉮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으며, 저서로 '과학다큐멘터리: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등이 있다.